

## 민주평화통일 미주지역 자문회의 연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니까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할 만큼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큰 부담을 받으면서까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국을 방문해 주시니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잠시 해외에 나가면 민족에 대한 감정이 각별해지고 국가에 대한 생각도 아주 각별해집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고향을 떠나서 한국과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사셨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 각별한 애국심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정성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정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조병창 북미주 부의장님 말씀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분 협의회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해외 지지기반, 차세대 육성, 지역협의회 활성화, 그리고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책, 아주 좋은 말씀들이었습니다. 해외에 계셔서 우리보다 약간 정보에 어두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히 수준 높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저니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이 국무총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위원이셨는데 그동안 정부에 해외동포정책 좀 제대로 하라고 많이 다그치셨습니다. 그냥 해외동포정책을 잘하라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해외동포청을 신설한다거나 지금의 기구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외동포들을 네트워킹하고, 그 자원을 국력의 한 부분으로 개발시켜 나가자, 통일의 동력으로 결집시켜 나가자, 그런 제안을 끊임 없이 해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총리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에서는 지금 꽤 잘하는 편이고, 더 하실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사이 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의논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 조금 다르고 서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을 뿐이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차질 없이 해외동포 여러분이 역량을 엮어 나가고 또 합쳐 나가고 우리 국내의 역량과 하나로 키워 나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의 운명은 우리들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문화, 민족이라는 혈연과 같은 틀 속에서 생깁니다. 국가라는 틀 속에서 국가적 사고가 생깁니다. 근대국가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 국가의 크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많이 커져서 국가도 시장의 크기만큼 커질 것인지는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만, 국가라는 틀이 우리 사고를 지배하고 시장이라고 하는 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 외에 인류가 공동으로 변명해야 한다는 인류의 대의,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사고의 틀들이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서로 충돌되고 있습니다. 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어느 것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고를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를 모아 나

가지 않으면 사분오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함께 가다가도, 단결해서 가다가도 길을 잘못 들어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좋은 길이 있어도 '네 길이 옳다. 내 길이 옳다.' 밀고 당기고 싸움만 하다 보면 성공을 거둘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족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자. 국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하자.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자.' 또는 '세계의 보편적 가치, 미래의 질서를 중심으로 판단하자.' 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의 선후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서 더욱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옳고 또 가장 많은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는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답은 우리의 역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반복되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나아가는 방향에 자기 법칙성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역사를 보고 반복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역사가 길게 나아가는 방향을 보고, 내일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는 희망도 있고 불안도 있습니다. 하나는 동북아시아 경제권이 라는 커다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성급한 사람들은 동북아공동체를 지향하는 미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약간 쑥스럽게도, 잘 아시듯이 지금 한국은 일본과 역사문제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있습니다. 이런 얼굴 붉히는 관계가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과 함께 작용해서 또다시 어떤 불행한 역사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굳게 손잡고 중국을 경계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국과 일본이 무슨 일을 하던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휩쓸릴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도 끊임 없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도

이 의문 사이에서 끊임 없이 방황합니다. 조금 전에 협의회장 한 분께서 '시에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을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의 잠 못 이루는 밤' 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통일국가가 나타나면 한반도는 한 번씩 흥역을 치릅니다. 한 무제가 나타나서 중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세력을 한반도로 뻗었습니다.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중화사상에 의해서 천하를 중국의 질서 속에서 다스려야 된다는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BC 109년에서 1년 동안을 버티었는데 마침내 고조선은 함락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난은 수와 당이라는 강력한 통일국가가 등장하고 배후에 신라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소위 중국의 천하의 질서, 천자의 질서, 요새 말로 하면 패권질서를 끝내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자적 연호를 쓰고 독립과 자존을 지키려고 하다가 협공을 당해서 결국 고구려의 상무적 기상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서 뿌듯한 자랑을 느낍니다만 전략적으로 적절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이고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 북방에서 요와 거란, 금나라가 나타났을 때 중원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전에 배후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공합니다.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면 그 패권을 우리더러 승인하라는 뜻으로 반드시 '너 내 신하 맞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확인을 거부하면 대병을 일으켜서 우리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명과 청이 교체될 때도 우리는 같은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일본에 강대한 세력이 나타났을 때에도 한반도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592년 소위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조선 말에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서구화되면서 한반도에서 청일·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마침내 한국이 식민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일본은 삼국시대인 5세기경에 중국에 보낸 국서에

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합니다.

어떻든 우리 역사는 중국이 강해져도 일이 나고, 일본이 강해져도 일이 난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친 일이 없는데 이웃나라 사정으로 항상 고난을 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도자기 기술은 바로 그 시대 산업기술의 꽃이었습니다. 일본은 수많은 도공을 잡아가 버렸고, 우리나라는 도자기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농사 잘 짓는 사람 등을 비롯해서 10만 명을 잡아가 버렸습니다. 경작지가 3분의 1로 축소돼 버렸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지는 하지만 그때 그렇게 당하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적으로 상당히 발전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수백 년 전까지 인과관계를 연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애석한 역사입니다.

일본이 국가적 영광을 추구하는 네 번째 행위가 작금의 행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왜 계속해서 국가적 영광을 추구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꼭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의 천자는 하늘 아래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그 질서 속에서 위계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천자 사상을 일본이 그대로 베껴 갔습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도 천황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있었는데, 통일신라가 탄생하니까 일본도 위기를 느껴서 국가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대보율령(大寶律令)이라는 것을 반포해서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당나라는 거대한 제국이고 여러 변방들이 있어서 황제의 나라와 왕의 나라 간 위계를 둘 수 있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황제가 있으면 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왕의 자격을 가지라고 요구한 데가 오키나와와 유구였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왕이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민족사관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중국더러 항상 큰집이라고 했습

니다. 깍듯이 형님 대우를 하고 살았는데 또 난데없이 일본이 저도 형님하겠다고 하니까 죽보가 다르잖아요. 이게 수천 년 내려온 한·일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본의 그 같은 국수적 경향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륙과 해양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던가를 보면, 대체로 국제정세에 어두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 국제정세를 잘 알고 잘 대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조선 초기 약 100년간 국제정세를 잘 알고 적절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그것은 중국의 패권적 질서를 수용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쟁 걱정 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살면서 많은 산업적·문화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다른 시기를 보면 국제정세에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없었고, 대비가 될 리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도 대비를 못한 사연이 있습니다. 나라가 분열돼 있었기 때문에 재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나는 안전하다고 말해야 되고, 재가 안전하다고 말하니까 나는 위험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치를 당한 시기마다 국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당파싸움의 역사를 얘기하면 민족사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본의 식민사관이 만든 자기비하의 역사일 뿐이지 우리가 당쟁이 뭐 있었느냐, 그리고 당쟁의 긍정적 역할도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긍정적 역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당쟁이 국난을 앞에 두고도 그치지 않아 마침내 국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만큼 국론을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구한말은 어디로 갔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갈 데가 없었지요. 국력이 하나도 없는데 국론을 어디로 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국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대책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공리공론만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움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큰 일을 앞두고 싸움이 납니다. 자녀 결혼시킬 때도 돈이 돌아가면 집안이 기쁘지만 돈이

안 돌아가면 부모 간에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없는데 별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힘이 셉니다. 중국도 세고 일본도 세고 러시아도 세고 미국도 셉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줄 안 서도 됩니다. 힘 있으면 됩니다. 이제 비로소 한국이 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민족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절반은 의지하고 사는 상황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고맙습니다. 한국이 이만하면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한쪽에 안 붙어도 갈만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주로 미국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결코 미국하고 얼굴 붉힐 일이 아닙니다. 신세를 졌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친구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서 사는 것하고 독자적으로 살면서 다정한 친구가 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기대는 전략을 통해서 성공했지만 이만큼 몸집이 커지고 살림도 좀 나면 독자적인 진로를 선택해서 성공하는 전략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대서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도 없고 앞으로 잘못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반복되는 역사를 우려하면서 지난날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역사는 진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보하는 역사는 제왕의 권력이 모든 국민들에게, 또 세계 모든 이들에게 확대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개인의 존엄성이 왕과 다르지 않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인류 역사의 진보과정이고, 문명의 발전과정입니다. 모든 역사는 반복되지만 이 발전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고 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사상에 우리가 감화되지 않았을 때 지배를 받아들이고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복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족국가의 상태를 벗어난 오늘날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이제는 어떤 외부의 지배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나라 독재의 억압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일본 또는 미국과 중국의 잠재적 갈등요인들이 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은 침략과 지배, 억압의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이 진보의 역사가 결코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서로 얽혀서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와 반복하려는 역사, 이 두 개의 힘이 팽팽하게 실려 있는 것이 21세기 초 두 세계의 상황이고 동북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질서입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가 한쪽의 손을 듭시다. 되돌아가지 않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팽팽한 균형을 깨고 역사를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역사의 법칙은 거역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많은 역사의 법칙은 사람이 만들어 온 것입니다.

위대한 민족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을 굳게 다져 나가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과 힘을 모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지면 안됩니다. 지금 이미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남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남남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를 놓고 지금 약간의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은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역사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열해서 안된다는 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함께 논의하고 찾아 나가 봅시다.

미국은 러일전쟁 시기에는 일본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일전쟁 시기에는 일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일본과 싸웠습니다. 해방기 소련이 등장할 때는 다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틈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우리 독도가 빠져 버렸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역사의 법칙은 냉엄한 것이라는 것이죠. 민족, 국가, 경제, 그리고 인류와 같이 이 틀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겹쳐지느냐에 따라 국가의 선택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감당해 나가십시오. 이것이 국민을 단결시키는 데 가장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옳다고도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수용하기 좋은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서로 함께 가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면서 멀리 내다보고 조금씩 서로 조절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싸우자면 한이 없습니다. 감정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고 말을 하다 보면 주제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말꼬투리만 잡고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끝이 없어집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가끔은 이런 모양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가슴을 열고 대화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옳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모두가 선택하기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편안하고 부자가 되지만 상대방이 망하는 길은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해도 선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좀 해소돼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양극화라는 문제는 극복될 것입니다. 왜 양극화 문제를 요란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떠들어야 문제가 되고 문제가 돼야 극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선두는 잘 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 벤처 거품이 너무 컸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출원건수가 세계 6위입니다. 내년에 5위가 되고, 내후년에 4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투자가 오는 것은 반가운데 달러가 자꾸 쌓여서 공급초과가 돼서 원화가치가 자꾸 올라가 수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걱정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역사가 이젠 누구의 지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로 간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것 아닌가.’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사이가 참 나빠질 것 아니냐, 그래서 큰 일 벌어질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중국에 대한 정책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 그 전체를 보면 중국하고 비교적 각이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불안이 좀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각이 덜 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키신저 장관 같은 분을 만나면 중국하고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거든요. 미국도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하지만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큰 틀을 깨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중국을 경계하는 것이 이 시기 미국에게 필요하면 중국을 경계하는 노선을 선택하고,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름을 쓰면서까지 중국과 가까이 가는 전략을 선택할 때는 또 그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낀 우리가 이것을 미국 역사의 큰 흐름이나 미국 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지 않고 그때그때 쳐다보면 어떤 때는 중국과 미국이 어떤 일이 있으려나 생각되기도 하고, 또 어느 시기에 보면 손잡고 세계질서를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려는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일관계, 미·일관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전체 관계를 크고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의 질서는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진보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그 역사의 큰 흐름을 역행하는 우발적인 사건이나 불행한 사건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의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미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제 올바른 전략만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을 선택하고 올바른 정책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건의해 주신 것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통은 공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유일한 조직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직이고 유일한 조직이고 영향력 있는 조직입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경주에서 이제 편안하고 재미있는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사업 잘하시고, 민주평통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한국을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 정부가 다하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역할들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커다란 화해와 협력의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